

# 일제에 끌려간 31명의 처절한 증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집  
피해 할머니들 자서전 이어 두번째  
7명은 구술집 나오기 전 세상 떠나



“아카시아 꽃이 3월 달이면 하얗게 피어요. 가서 고놈 활아먹느라고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일 안 가고 고놈 활아먹느라고... 아, 고놈이라도 활아먹은게 살 것 같더라 말아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군으로 동원되고,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우리지역 어르신들의 아픔을 생생히 담아낸 구술집이 나왔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동원돼 국외로 강제 징병·징용된 피해자들의 구술집 '백고향의 어머니들'이 나왔다.

이번 구술에는 정순용 할아버지 외 강제징병된 군인 8명, 징병호 할아버지 외 군무원 8명, 전홍일 할아버지 외 노무자 9명, 양금덕 할머니 외 여자군로정신대 6명 등 3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번 구술에는 정순용 할아버지 외 강제징병된 군인 8명, 징병호 할아버지 외 군무원 8명, 전홍일 할아버지 외 노무자 9명, 양금덕 할머니 외 여자군로정신대 6명 등 3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일본군, 군무원, 노무자, 여자군로정신대 등에 동원되면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31명 어르신들의 증언이 담겼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2019년) 간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의 경험담을 직접 들었다.

결혼한 지 보름만에 영장이 나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최영군 할아버지, 17살 어린 나이에 탄광 막장에 끌려가 연탄을 줬다는 전홍일 할아버지, 시민모임은 어르신들의 증언 하나 하나가 가슴 아프지 않은 사연이 없었고, 역사 자료가 될 만한 소중한 증언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가운데 조주호 어르신이 1922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오연임 할머니가 1936년생으로 가장 어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주호·정유환·김오근·전홍일·남정노·권충훈·곽옥남 등 7명의 피해자는 구술집이 완성되기 전 세상을 떠났다.

시민모임 측은 “나머지 생존자들도 질병 등으로 증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술집이 마지막 육성 증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억을 남기는 것은 두 번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안 된다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되묻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배고픔과 구타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 역사속의 피해자들이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아픔과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게 시민모임 측 설명이다.



복수초



변산바라꽃

## 잔설 속에 피어난 무등산의 봄

### 복수초 개화·개구리 산란 확인

겨울을 지나 무등산에 봄이 찾아왔다. 25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무등산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봄의 전령사인 복수초와 변산바라꽃의 개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이 확인됐다.

복수초는 지난 1월 20일께부터 이어진 1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1월 31일, 변산바라꽃은 2월 16일 개화하면서 봄이 왔음을 알

렸다. 봄비와 함께 북방산개구리도 산란과 부화를 마쳤다. 북방산개구리는 온화한 기온의 영향과 함께 비가 내린 지난 2월 1일 산란과 부화가 확인됐다.

임윤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이른 봄이 찾아온 무등산처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도 하루빨리 봄이 왔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무등산이 국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화순전남대병원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에서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맡고, 권역내 협력체계 총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의료자원 집중, 지역내 필수 보건의료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간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필수 보건의료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17개 권역과 70개 중진료권별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서, 권역내 정부지정센터·보건소·소방본부·지역 책임의료기관·복지기관 등과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대장암·폐암 환자 집중),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료 진료 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신명근 원장은 “전남권역의 구심병원으로서, 지자체는 물론 각종 의료·복지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증진해 탄탄한 필수의료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더욱 수준높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쓸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중 기자 chae@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독립운동 VR 체험존' 운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3월부터 VR(가상현실)을 통해 학생독립운동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대표적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사건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독립운동 VR 체험존'을 운영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VR 체험존' 거점운영 기념관으로 선정한 4곳(안중근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중 하나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층에 마련된 'VR 체험존'을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하며, 체험 소요 시간은 약 10분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이상이면 체험할 수 있고, 체험비는 무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사직기록보관소 프로젝트 완성 사직동 마을 이야기 영구 보존

옛 선비의 숨결이 남아있는 '천년 사직' 광주시 남구 사직동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구히 보존된다. 25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사직동 주민공동체 담쟁이 사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직기록보관소 프로젝트가 마을기록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성거사지 오층석탑과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 향교가 있어 한때 번성했지만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쇠퇴했다.

사직기록보관소는 번성했던 1970~1980년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직동의 공간적 특색과 주민들이 소유한 사진, 골동품을 활용해 역사적 의미를 더한 아카이브 기획으로 사직동의 지역사 및 지역민의 생활사 연구에 관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준비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 본청 인력 줄이고 스마트교육팀 신설...전남교육청 조직개편

### 3국 2담당관 14과 63팀으로 재편

전남교육청이 본청 인력 감축 등 조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코로나19 상황 속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1일자로 조직을 개편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에서 본청 인력 30명을 감축, 확보한 정원을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재배치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시스템을 마련하

기 위해 미래인재과에 스마트교육팀을 신설하고, 작은학교 지원 강화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을 위해 혁신교육과 농어촌교육지원팀을 작은학교지원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 체계는 3국 2담당관 14과 63팀으로 재편된다.

직속기관도 개편한다. 창의융합교육원의 전남 미디어센터 운영 업무를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해 미디어센터(온라인 채널) 활용을 통한 진로·직업 멘토링을 강화한다. 생태적 감수성 함

양과 친환경 가치관 형성 지원, 환경 업무 통합을 위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을 창의융합교육원 소속으로 재배치한다. 도 교육청은 본청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불요불급한 업무는 폐지하고 전사 업무들은 줄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